

제임스 조이스의 「가슴 아픈 사건」과 폴 오스터의 「오기 렌의 크리스마스 이야기」 속 패러디 기법 비교

이 영 심

I. 들어가며

폴 오스터(Paul Auster)는 조이스(James Joyce)를 “성년이 된 다음에 어떤 작가보다도 최고로 여겼으며”(Wood 135) 고등학교 졸업 직후에 떠난 유럽 여행 중, “조이스의 『율리시스』를 경험하기 위해 더블린을 방문”(Brown 53)했을 정도로 조이스의 문학적 성취를 높게 평가했다. 조이스는 자신의 텍스트 속에 호머(Homer), 셰익스피어(Shakespeare), 단테(Dante) 등의 고전 문학 텍스트와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철학, 아퀴나스(Aquinas) 철학에서부터 당대 아일랜드 대중음악, 신문기사나 신문 광고 등 자신이 읽거나 접한 모든 것을 끌고 들어왔는데, 오스터 역시 형이상학이나 고전 문학에서부터 대중음악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접한 모든 것들이 문학의 소재가 될 수 있음을 주장했다. 또한 조이스가 아일랜드의 수도인 더블린을 주요 텍스트의 공간으로 선택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스터 역

시 미국을 대표하는 도시이자 자신이 살았던 뉴욕(New York)과 그 주변을 텍스트의 무대로 선택했다.¹⁾

두 작가는 또한 서사 기법에 대한 천착과 새로운 서사 실험을 보여주는데, 패러디(parody) 기법의 활용 역시 두 작가의 공통적 요소 가운데 하나다. 린다 허천(Linda Hucheen)에 따르면, 패러디는 대화적 긴장관계를 형성함으로써,²⁾ 대상에 대한 ‘매혹’과 ‘비판’을 동시에 드러낸다. 그녀는 패러디를 통해 두 텍스트 사이에 “아이러니적이고 비판적인 거리가 유지되는 반복,” 또는, 들뢰즈식으로 표현한다면 “차이 있는 반복”(32)이 만들어진다고 본다. 허천은 호머의 『오디세이아』(*The Odyssey*)를 패러디한 조이스의 『율리시스』(*Ulysses*)를 20세기 패러디 문학 가운데 “범위나 의도에 있어서 가장 노골적으로 차이를 드러내는” 최고의 텍스트로 꼽는다. “문체와 언어의 본질에” 대해 천착했던 조이스는 “패러디의 활용”을 “확대”(Kirchner iv)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율리시스』의 「아이올로스」(“Aeolus”) 장은 “19세기 후반 대중 매체”(Danus 1000) 가운데 가장 대중적 매체인 신문의 표제(caption)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프리먼스 저널』(*Freeman's Journal*)이나 『이브닝 텔레그래프』(*Evening Telegraph*)의 사무실”(Brockman, Mecsnober, and Alonso 4)을 공간적 배경으로 설정하고 있다. 조이스는 “평생 동안, 신문의 열정적 독자이자, 신문 기사 조각 수집가”(Brockman, Mecsnober, and Alonso 2)였으며 “신문 사업, 신문의 구성방식, 신문 광고, 대중 매체에서의 신문의 역할을 잘 알고”(d’Erme 26)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관심사를 펼치는데 있어서도 저널리즘이 중요하다는 것”(Killeen 204)을 잘 알고 있었다.

조이스에게 신문은 단지 새로운 정보를 얻는 수단에 그쳤던 것이 아니라, 글쓰기의 소재를 제공하는 보물창고이기도 했다. 이는 『율리시스』의 시간적 배경인 1904년 6월 16일의 조간신문 『아이리쉬 타임즈』(*Irish*

1) 폴 오스터는 레이섬(Jonathan Lethem)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조이스와 더블린처럼 [...] 나는 지금 브루클린에 관해서 쓰고 있다”(180).

2) 린다 허천은 이것을 바흐친의 용어로 “텍스트적 대화주의(textual dialogism)”라고 명명한다.

Times)와 석간신문 『이브닝 텔레그래프』(Evening Telegraph)에 실제로 실린 신문 기사 내용을 변주하여 『올리시스』에 등장시켰던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신문 기사는 ‘픽션(fiction)’이 아닌 ‘팩트(fact)’를 다룬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기자 혹은 신문사가 어떤 내용을 선택하느냐, 그리고 누구의 입장에서 기사를 쓰느냐에 따라 기사의 논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과, “짧은 신문 보도”(Kershner 118)만으로는 독자들이 신문기사에 실린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조이스는 잘 알고 있었다.

조이스의 신문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관심은 신문 서사를 다층적으로 패러디한 「아이올로스」장에서 잘 드러나는데, 그 출발점이 바로 『더블린 사람들』(Dubliners)의 「가슴 아픈 사건」(“A Painful Case”)이다.

먼저, 「가슴 아픈 사건」은 텍스트 속에 삽입된 신문 기사 제목을 텍스트의 제목으로 설정함으로써, 신문 서사에 대한 패러디를 암시한다. 그런데, 신문 기사의 내용은 ‘가슴 아픈 사건’이라는 제목과는 달리, 정작 그녀의 죽음에 대해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없는 ‘아이러니’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매수된”(won over, D 91)이라는 구절을 통해 기사가 누군가의 의도를 반영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한다. 이를 통해 신문 기사가 “우리의 인식을 바꾸고” 사실을 “창조”(Smith 462)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조이스는 신문 기사를 통째로 텍스트에 삽입하여, 기사를 감싸고 있는 텍스트의 서사와 충돌시킴으로써 신문 서사의 본질적 특징을 보여줌과 동시에 한계를 부각시킨다.

한편으로, 크리스마스 서사에 대한 패러디를 시도하는 「오기 렌의 크리스마스 이야기」(“Auggie Wren’s Christmas Story”)³⁾는 탄생과정에서부터 신문서사를 패러디를 하고자 하는 오스터의 의도가 깔려 있었다. 오스터는 “1990년 11월, 『뉴욕 타임즈』 특집란 편집장인 레비타스(Levitas)가 크리스마스 호에 실릴 소설”(이형숙 172)을 써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는 신

3) 이하 전체 제목이 꼭 써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 「오기 렌」으로 표기함.

문 서사가 사실만을 전달한다는 통념을 해체하고자 「오기 렌」을 쓰기로 계획했던 것이다.

오스터는 “리얼리즘적인 서사로 독자들을 유도”하지만, “자신이 속한 포스트모던 시대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시험”(박인찬 166)하는 것을 즐겼으며, 자신의 텍스트 속에 “항상 자신의 삶과 다른 작가의 문학을 언급”(Barone 5)하기를 좋아했고, 이 과정에서 오스터는 패러디 기법을 주로 활용했다.

신문 서사에 대한 패러디의 의도를 갖고 시작된 「오기 렌」은 본격적으로 기존 크리스마스 서사를 패러디하며, 더 나아가 셰익스피어의 『맥베스』(Macbeth)에 대한 패러디까지 시도한다. 먼저, 「오기 렌의 크리스마스 이야기」이라는 제목을 통해 크리스마스 서사를 패러디를 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또한 본문에서 작가로 등장하는 폴이 찰스 디킨스(Charles Dickens)나 오 헨리(O' Henry)의 텍스트에 대해 “감상적”이며, “기껏해야 소망충족의 꿈,” 아니면 “어른을 위한 동화”(「오기 렌」 17)에 불과하다고 평가함으로써 기존 크리스마스 서사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다. 폴은 기존 크리스마스 서사를 답습할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데(「오기 렌」 17), 「오기 렌의 크리스마스 이야기」는 폴의 이러한 생각을 반영한 새로운 크리스마스 서사를 보여준다.

두 텍스트는 또한 패러디를 통해 일상성을 강조한다. 먼저, 「가슴 아픈 사건」은 패러디의 대상인 일간 신문 서사를 텍스트의 중심에 배치함으로써 일상성을 부각시키며, 「오기 렌」은 셰익스피어의 『맥베스』 5막 5장에 등장하는 맥베스의 독백에 대한 패러디를 통해 인생은 거창하거나 허무한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는 오기 렌이 12년 동안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사진을 찍는 행위와 맞물리면서, 오늘날 작가의 역할이 바로 일상의 미세한 차이를 포착하는 것이라는 것을 부각시킨다.

본 논문에서는 두 텍스트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패러디 기법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II. 신문 서사 패러디: 「가슴 아픈 사건」

조이스는 『율리시스』에서 총 16개의 신문을 등장시킬 정도로 신문에 대한 관심이 많았으며, “작가로서는 특이할 정도로 평생 동안 인쇄업자, 신문종사자들과 관계”(Brockman, Mecsnober, and Alonso 1)를 맺었다. 특히 「가슴 아픈 사건」은 “언론의 주제가 놀라울 정도로 두드러진”(Donovan 29) 단편으로, 신문 기사를 통째로 텍스트 속에 삽입한다. 조이스는 실제로 “1903년 10월 16일자 『더블린 이브닝 메일』(*Dublin Evening Mail*)에 실린 ‘슬픈 사건’(A Sad Case)이라는 기사를 모델”(Kershner 113)로 하여 이 단편을 썼는데, 먼저 조이스가 과감하게 텍스트 안으로 끌고 들어온 신문 기사⁴⁾를 살펴보도록 하겠다.⁵⁾

시드니 퍼레이드 역에서 여성 사망: 가슴 아픈 사건

오늘 더블린 시립 병원에서 부 검시관(주 검시관 레베레트 씨는 부재 중이었음)이 어제 저녁 시드니 퍼레이드 역에서 사망한 43세 에밀리 시니코 부인의 시체를 검시했다. 증거에 따르면, 죽은 여성은 선로를 건너려고 시도하다 킹스타운 발 10시 완행열차에 치여, 머리와 우측 어깨에 치명상을 입고 사망했다. 기관사 제임스 레논은 철도회사에서 15년간 재직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역무원의 호루라기 소리에 따라 기차를 운행했으며, 커다란 비명소리가 들린 후 곧바로 기차를 멈추었고, 기차는 서행 운행 중이었다고 진술했다. 철도 인부로 일하는 P. 던 씨는 기차가 출발하려고 할 때, 한 여자가 선로를 건너려고 시도하는 것을 목격하고 [...] 그러나 그가 도착하기도 전에 그녀는 기차에 치여 바닥에 쓰러졌다. 크롤리 경사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고인이 이미 사망한 상태로 플랫폼에 누워 있는 것을 발견했으며

-
- 4) 한 번에 인용하기에 다소 긴 분량이기 는 하지만, 신문 서사에 대한 패러디가 본 논문의 핵심적 주제이기 때문에 신문 기사를 거의 대부분 인용하고자 한다.
- 5) 노리스(Margot Norris)에 따르면 「가슴 아픈 사건」에 등장하는 신문은 아일랜드에서 가장 오랫동안 발간되었던 석간 『더블린 이브닝 메일』(*Dublin Evening Mail* 1828-1962)이다(169).

[...] 57호 경관이 크롤리 경사의 말이 맞다고 확인해 주었다. 더블린 시립 병원에서 외과 보조로 일하고 있는 할핀 박사는 고인의 아래쪽 갈비뼈 2대가 골절되었고, 우측 어깨에 심각한 타박상을 입었으며, 또한 쓰러지는 과정에서 우측 두부에 부상을 입었다고 진술했다. [...] 그는 고인의 사망 원인은 아마도 충격과 갑작스러운 심장마비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철도 회사를 대신해서 H. B. 패터슨 핀라이 씨가 사고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현했다. 그는 철도회사는 모든 역에 경고문을 세웠으며, 건널목에 개방형 스프링 문을 설치하여 [...] 그는 고인이 밤늦게 플랫폼을 옮겨 다니며 선로를 횡단하는 습관이 있었으며 [...] 사고가 철도 회사 직원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말했다. 시드니 퍼레이드 레오빌에 거주하는 고인의 남편 시니코 선장 역시 증언했다. 그는 고인이 자신의 아내이며, 사고가 일어났을 당시에 자신은 더블린에 없었다고 진술했다. [...] 두 사람은 결혼한 지 22년이 되었으며, 그는 아내가 다소 무절제한 습관에 빠져들기 시작한 2년 전까지만 해도 행복하게 살아왔다고 진술했다. 고인의 딸 메리 시니코 양은 고인이 최근에 술을 사러 밤에 외출하는 일이 잦았다고 말했다. 그녀는 어머니를 [...] 금주 협회에 가입하도록 권유했다고 증언했다. [...] 배심원단은 의학적 증거에 따라 판결을 내렸고, 기관사 레논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 검사관은 이것은 매우 가슴 아픈 사건이라며 시니코 선장과 딸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했다. [...] 사고에 대한 책임은 아무에게도 없었다. (D 93-95, 필자 강조)

위에서 보는 것처럼 ‘가슴 아픈 사건’이라는 이 신문 기사는 압도적으로 많은 공직자들(부검사관, 기관사, 역무원, 순경, 철도회사 대표)을 등장시켜(Sanit-Armour and Lawrence 242) 기사의 신뢰도를 높이려고 시도한다. 이 신문 서사는 세 가지 내용을 반복적으로 제시하는데, 첫 번째는 시니코 부인의 사망 원인에 관한 것으로, 부검사관의 말을 인용해서 시니코 부인의 아래쪽 갈비뼈가 골절되고 오른쪽 어깨에 타박상을 입었으나, 직접적 사망원인은 쇼크와 심장마비라는 것을 언급한다. 이것은 그녀가 열차에 부딪치면서 입은 부상과 그녀의 사망 원인을 분리시킴으로써, 그녀의 사망이 기관사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부각시킨다. 두 번째는 시니코 부인

이 알콜 중독자라는 것을 부각시키는 부분으로, 특히 이러한 사실을 그녀의 남편과 딸의 진술을 통해 언급함으로써 진술의 신빙성을 높인다. 세 번째는 부인의 죽음에 대한 유감을 표현하는 것으로 기사 제목을 “가슴 아픈 사건”으로 붙인 것, 철도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이 유감을 표현한 것, 마지막으로 부 검시관의 언급 등을 통해 3번이나 등장한다.

이처럼 신문기사는 사고를 낸 기관사, 역무원, 사고 목격자, 검시관, 그리고 시니코 부인의 가족 등, 사고와 관련된 거의 모든 사람들의 진술을 포함시킴으로써, 객관적 사실을 보도하는 것처럼 세심하게 신경을 쓴다. 여기에 덧붙여서 레논이 ‘철도회사에서 15년간 재직’한 베테랑 기관사라는 사실과 그가 규정에 따라 열차를 운행했다는 것을 강조한다. 최종적으로 법정에서 기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는 사실을 언급함으로써 철도회사가 사고에 책임이 없다는 내용을 부각시킨다. 이처럼 기사의 제목은 ‘가슴 아픈 사건’이지만, 이것은 사망사고에 대해 관례적으로 붙이는 상투적 표현에 불과할 뿐, 기사의 목적은 그녀의 죽음에 철도회사가 책임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결론적으로, 기사는 목격자나 전문가의 증언을 통해 열차사고가 시니코 부인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가족의 증언을 이용하여 그녀가 알콜 중독자라는 사실을 각인시켰으며, 마지막으로 그녀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철도회사의 인간적 면모를 부각시켜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신문 기사를 반복적으로 읽은 더피가 신문 서사의 이러한 속성을 파악하고 분노를 드러낸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더피는 신문에서 눈을 들어 창밖으로 활기 없는 저녁 풍경을 내다보았다. [...] 이렇게 죽다니! 그녀의 죽음에 관한 기사의 모든 내용이 그의 속을 뒤 틀리게 했다. [...] 진부한 구절들, 동정을 드러내는 김빠진 표현들, 흔하고 통속적인 죽음의 세세한 내용을 감추기 위해 매수된 기자가 사용한 신중하게 선택한 단어들 때문에 그는 역겨움을 느꼈다. (D 95, 필자 강조)

더피는 “에밀리 시니코의 침울한 죽음을 설명하는”(Conley 263) 신문 서사를 “진부한 구절”과 “무의미한 동정의 표현” 그리고 “신중하게 선택한 단어들”이라고 정확하게 짚어낸다. 이처럼 더피는 신문 기사의 의도를 정확하게 포착하는데, 특히 “매수된”이라는 구절은 이 기사가 철도회사에게 유리하게 작성되었기 때문에, 기사가 철도회사에게 매수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중요한 것은 “가슴 아픈 사건”이라는 신문 기사의 제목과는 달리 시니코 부인의 남편이나 딸마저도 슬픔을 드러내지 않는 무미건조한 신문 서사와, 뒤에 바로 이어지는 더피의 격앙된 감정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텍스트의 서사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는 점이다.

그는 그녀의 암울하고 부도덕한 악덕의 추잡한 흔적을 보았다. **영혼의 동반자라니!** 그는 빈 병이나 깡통 따위를 들고 다니며 바텐더에게 술을 구걸하며 살아가는, 비틀거리는 비참한 사람들을 떠올렸다. **맙소사!** 어떻게 그렇게 삶을 끝낸단 **말인가!** 분명 그녀는 살아갈 가치가 없는 여자였던 것이다. 삶에 대한 의지를 상실한 습관의 손쉬운 먹잇감으로, 문명의 잔해들 가운데 하나인 알코올 중독자로 그녀는 전락한 것이었다. 하지만 어떻게 그토록 비참하게 주저앉을 수 **있단 말인가!** (D 95, 필자 강조)

자유간접화법을 활용하여 드러내는 더피의 내면 의식은 느낌표가 무려 네 번이나 사용된 것에서도 잘 나타나듯이, 격앙된 그의 감정이 고스란히 표출된다. 이는 그가 시니코 부인과의 관계를 단절한 뒤에 규칙적이고 판에 박힌 이전 생활로 돌아갔던 것과 대조될 뿐만 아니라, 무미건조한 신문 서사의 문체와도 대조를 이룬다. 철도회사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치밀하고 차분하게 전개된 신문기사의 어조와는 달리, 극도로 격앙된 감정을 표출하는 더피의 서사는 그가 시니코 부인의 죽음에 얼마나 많은 충격을 받았는지를 잘 보여준다. 더피는 비록 처음에는 알콜 중독자가 되어 자살한 시니코 부인에 대한 경멸과 반감을 드러내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는

신문 기사에서 묘사한 시니코 부인의 남편과 딸의 무덤덤한 반응과 대조되는 격렬한 반응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더피가 이렇게 격렬하게 반응한다는 것은, 더피 자신은 미처 의식하지 못했는지라도 가족보다 그가 심리적으로 그녀와 더 가까웠음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더피의 이러한 격렬한 반응은 그가 그녀의 죽음을 곱씹는 과정에서 그녀의 외로움을 이해하는 데까지 나갈 수 있는 단초가 된다.

막상 그녀가 죽고 나니 그는 밤마다 방에 홀로 앉아 있었을 그녀가 얼마나 외로웠는지를 이해했다. 자신의 삶 역시 외로울 것이다. [...] 왜 자신은 그녀에게 사형선고를 내렸을까? [...] 그는 인생의 향연에서 추방당했다는 느낌을 받았다. 한 인간이 자신을 사랑했지만, 그는 그녀의 삶과 행복을 부정했던 것이다. 그는 그녀에게 불명예를 선고했고, 수치스러운 죽음을 선고했던 것이다. [...] 이제는 어둠 속에 그녀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없었고 그녀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한동안 귀를 기울이며 기다렸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혼자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D 96, 필자 강조)

우월의식과 자기중심성의 외피에 껍질 씌여 있었던 더피는 시니코 부인과 교류를 하면서도 그녀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죽음을 신문을 통해 접하게 되면서 그의 태도에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그는 열차 사망사고를 단지 알콜 중독자의 부주의로 치부한 신문 기사에 격분한다. 그리고 흥분이 가라앉자 그는 그녀와의 만남을 곱씹는 과정에서 그녀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깨닫게 되며, 더 나아가 그녀의 외로움을 이해하게 된다. 이것은 진심이 담기지 않은 신문 기사와는 달리, 그가 그녀의 죽음을 애도하는 과정을 통해, 그녀를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더 나아가 오직 자신밖에는 몰랐던 더피가 비로소 타자를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삶을 이해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가슴 아픈 사건」은 신문 기사의 제목인 “가슴 아픈 사건”과

대조를 이루는 본 텍스트의 서사를 통해, 신문 기사의 한계를 드러낸다. 더 나아가, ‘가슴 아픈’(painful)이라는 신문 기사의 제목에 들어있는 형용사의 의미를 다층적으로 확대시킴으로써 신문기사가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 부분을 보충한다. 먼저, ‘가슴 아픈’이라는 형용사를 시니코 부인에게 적용시킨다면, “여성의 욕망을 위한 공간을 허용하지 않는”(오길영 238) 당대 가부장적 남성중심주의 가치관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아내를 가정의 부속품으로 여기는 시니코 선장과 같은 당대 남성들의 편협한 사고방식과 여성들에게 가정을 위해 헌신하라고 설파하는 가톨릭 종교가 공모하여 그녀를 죽음으로 몰아갔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해진 선로만을 달리는 기차처럼 경직된 사고방식을 가진 더피 역시 그녀의 죽음에 일조했다고 할 수 있다.

시니코 부인이 아니라, 에밀리(Emily)라는 그녀의 이름이 처음으로 호명되는 것이 그녀가 죽은 뒤에야 가능하다(Vekić 101)는 것은 당대 사회에서 그녀처럼, 결혼한 여성들이 독립된 주체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것을 드러낸다. 특히 “아내를 즐거움의 회랑에서 완전히 배제”(D 90)한 시니코 선장이 “2년 전까지는 22년 결혼생활 동안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언급한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더블린과 암스테르담을 오가는 외항선의 선장인 시니코의 직업은 19년간 이타카(Ithaca) 섬을 떠나 있었던 오디세우스(Odysseus)처럼 당시 남성들이 가정 밖의 삶을 중시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시니코 부인은 이렇게 가정에서 소외되었을 뿐만 아니라, 밖에서 만난 더피와의 관계에서도 소외를 경험한다. 그와의 관계 역시 동등한 것이 아니라, “모성적 배려,” “이국의 식물에게 따뜻한 토양,” 그리고 “고해신부”(D 91)라는 구절에서 드러나듯이, 마치 어머니/아들, 식물/토양, 그리고 신도/고해신부처럼 더피 중심의 일방적 관계였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더피의 입장에서 ‘가슴 아픈’ 측면은 자기중심성과 우월의식에 갇혀 무미건조한 삶을 살아오던 그가, 다른 사람과 “엮혔다가” 원래의 “고립으로 돌아온”(Sanit-Armour and Lawrence 239) 것에서 드러난다. “내

면화한 가톨릭 도덕관”(최석무 23)의 경직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해 천금과도 같은 기회를 스스로 차 버렸던 더피는 신문을 통해 시니코 부인의 죽음을 접하고서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한편으로, 더피가 이렇게 의식적 변화를 겪게 된 계기가 바로 석간신문에 실린 시니코 부인 사망 기사를 읽고서 알게 되었다는 사실 역시 중요하다. 저녁식사를 먹으면서 석간신문을 보는 더피처럼 당대에 신문은 더블린의 일상의 중요한 요소였으며, 석간신문은 특히 당일 경마 결과를 알려주기 때문에 더욱 중요했다. 일간신문은 하루 단위로 발간되기 때문에 일상의 삶에 초점을 맞춘 서사이다. 조이스는 이러한 특징을 갖는 신문 서사를 텍스트의 중심에 배치함으로써 자신의 문학의 주제가 일상성임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가슴 아픈 사건』은 당대 일상 속에 깊게 파고든 신문 서사에 대한 패러디를 통해 다양한 효과를 거두었다. 먼저, 신문 기사 제목과 텍스트 제목 사이의 긴장관계를 활용하고, 신문 서사와 소설 서사의 이질적 특성을 대조시켜 신문 서사의 특징과 한계를 노출시켰다. 아울러 기사 제목에 관계적으로 무의미하게 사용된 ‘가슴 아픈’이라는 형용사를 텍스트로 확대시켜, 당대 사회의 ‘가슴 아픈’ 문제를 효과적으로 조명했다.

III. 「오기 렌의 크리스마스 이야기」: 크리스마스 서사와 셰익스피어 『맥베스』 패러디

「가슴 아픈 사건」이 제목을 통해 신문 서사에 대한 패러디라는 것을 암시했던 것처럼, 「오기 렌의 크리스마스 이야기」 역시 제목에서 이 텍스트가 ‘크리스마스 서사’와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드러낸다. 또한 본문에서 작가로 등장하는 폴이 『뉴욕 타임즈』로부터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써 달라는 청탁을 받아들인 후, 기존 크리스마스 이야기들에 대한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는 장면을 통해 「오기 렌」이 크리스마스 서사에 대한

패러디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나는 이후 여러 날 동안 디킨스, 오 헨리, 그리고 크리스마스 정신을 보여준 다른 대작가들과 싸우면서 절망 속에서 보냈다. 바로 “크리스마스 이야기”라는 구절 자체가 내게는 불쾌한 연상들, 즉, **위선으로 가득한 끈죽 덩어리들이 마구 쏟아져 나오는 끔직한 모습을** 연상시켰던 것이다. 크리스마스 이야기들은 기껏해야 **소망 충족의 꿈, 어른들을 위한 동화에 불과했다.** [...] 그 누가 **감상적이지 않은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쓰겠다고 제안할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은 용어 자체가 모순이고, 불가능한 것이었으며, 풀 수 없는 수수께끼였다. 차라리 다리 없는 경주마나 날개 없는 참새를 상상하는 편이 더 나은 것이었다. (『오기 렌』 17-18, 필자강조)

여기서 풀은 기존 크리스마스 서사가 ‘위선적’이며, ‘소망을 충족시키는 꿈,’ 혹은 ‘어른들을 위한 동화’에 불과한 ‘감상적인’ 이야기라고 평가함으로써, 그것이 현실성이 결여된 진부한 이야기에 불과하다는 점을 부각시킨다.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롤』(*A Christmas Carol*)이나, 오 헨리의 「메기의 선물」(“The Gift of Magi”) 등 기존 크리스마스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권선징악, 개과천선, 헌신적 사랑 등의 주제로 감동을 준 것은 분명하지만, 작가로 등장하는 풀이 보기에 이러한 기존 크리스마스 서사는 전형적이고 진부한 비현실적 이야기에 불과하다.

하지만 풀은 ‘감상적이지 않은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쓰는 것은 ‘다리 없는 경주마’나 ‘날개 없는 참새’처럼 불가능한 일로 여긴다. 그런데 풀이 담배를 사러 가는 가판대에서 일하는 오기 렌이 자신이 경험한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이 ‘난제’를 해결해주는데, 그것이 바로 ‘새로운’ 크리스마스 이야기인 「오기 렌」인 셈이다.

그렇다면, 「오기 렌」이 기존 크리스마스 서사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오기 렌」의 등장인물들이 전형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오기 렌, 로버트 굿윈(Robert Goodwin), 로버트 굿윈의 할머니 에셀(Ethel) 등은 기존 크리스마스 서사의 주인공들과는 달리 양가적 특징을 갖는 인물들이

다. 이들은 전형적인 착한 인물과 거리가 있는데, 이들은 물건을 훔치거나, 거짓말을 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이들은 전형적인 악인과는 거리가 멀다. 오기 렌은 비록 굿윈의 집에서 최신형 카메라를 훔쳐 나오기는 하지만, 그는 타인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는 인물이다. 그는 굿윈이 책을 훔쳐 달아나다가 떨어뜨린 지갑에서 굿윈의 운전면허증을 발견하지만, 고작 값싼 문고판 책을 훔치는 그를 안쓰럽게 여겨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뿐 아니라, 크리스마스에는 그에게 지갑을 돌려주기 위해 그의 집을 찾아가는 수고를 한다. 그는 또한 애타게 손자를 기다리고 있던 눈이 먼 에셀 할머니에게 손자인 척하며, 음식을 사가지고 와서 크리스마스를 함께 보낸다. 두 번째는 「오기 렌」이 권선징악의 주제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실, 등장인물들은 선한 면과 악한 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응징하는 플롯이 불가능하다. 이것은 현대인의 특징과도 맞닿아 있는데, 현대인들 역시 복잡한 내면을 가지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상반된 면모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오기 렌」이 기존 크리스마스 서사와 다른 세 번째 측면은 일상성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오기 렌은 폴에게 12년간 동일한 장소와 동일한 시간에 찍은 4000장 이상의 사진을 보여주는데, 폴은 모두 똑같아 보이는 사진에 처음에는 당혹감을 느끼지만, 천천히 사진을 다시 살펴보는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는다.

그들을 알아볼 수 있게 되자, 나는 그들의 모습들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 마치 그들이 가진 사연들을 상상하려는 듯이, 마치 그들의 몸 안에 숨겨져 있는 보이지 않는 드라마 안으로 들어가려는 듯이 [...] 이제 나는 처음 앨범을 보았을 때처럼, 지루해하거나 혼란스럽지 않았다. [...] 그는 마치 내 생각을 읽어내기라도 한 것처럼, 셰익스피어의 한 구절을 읊조리기 시작했다. “내일 그리고 내일 그리고 내일,” 그는 작은 소리로 중얼중얼 말했다. “시간은 하찮은 듯한 걸음걸이로 기어간다.” (「오기 렌」 16, 필자강조)

폴 오스터는 오기 렌의 입을 통해 직접적으로 맥베스의 5막 5장 맥베스 독백의 한 구절을 끌고 옴으로써 『맥베스』를 패러디하는데, 이 부분에서 인용된 맥베스의 대사는 셰익스피어가 맥베스의 독백을 통해 제시한 의미와는 분명한 차이를 드러낸다. 자세하게 비교하기 위해서 맥베스의 원래의 독백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내일, 그리고 내일, 그리고 내일이,
 소심한 속도로 한 날에서 다른 날로 기어간다.
 기록된 시간의 마지막 음절을 향해.
 그리고 모든 우리의 어제들이 바보들에게
 칙칙한 죽음으로 향하는 길을 밝혀왔다. 꺼져라, 꺼져라, 짧은 초여!
 인생이란 단지 걸어 다니는 그림자이고,
 무대 위에서 자신이 연기하는 시간 동안
 거들먹거리고 조바심 내는 불쌍한 배우이다,
 그다음에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것은 백치가 말하는 이야기이다.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는, 소리와 분노로 가득한
 (*Macbeth* 159-60, 필자 강조)

권력욕에 사로잡혀 온갖 계략을 다 꾸미지만 결국 실패한 후에, 마치 무대 위에서 배우가 ‘거들먹거리고 조바심을 내다가’ 시간이 지나 무대에서 내려오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처럼,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는 맥베스를 통해 셰익스피어가 인생의 덧없음과 권력욕의 무의미함을 말한다면, 폴 오스터는 오기 렌의 사진 찍기를 통해 어제와 달라 보이지 않는 하루하루의 미묘한 차이가 바로 삶의 의미라는 것을 강조한다. 셰익스피어 시대에 문학의 주제는 인간의 권력욕, 지식욕, 질투, 우유부단함 등 인간에 대한 거시적 통찰을 보여주었다면, 폴 오스터는 오늘날의 문학의 주제는 평범한 하루하루의 삶 그 자체, 즉, 일상성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패러디는 기존 텍스트와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드러내지만, 동시에 유사성 역시 보여주는데, 「오기 렌」은 기존 크리스마스 서사와 다른 맥락에

서 ‘감상성’(sentimentality)을 드러낸다. 폴은 기존의 크리스마스 이야기의 ‘감상성의 곤죽’에 염증을 드러내지만, 감상적이지 않은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쓰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이야기함으로써, 크리스마스 서사의 본질이 독자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인정한다.

사실, 「오기 렌」이 주는 감동은 오기 렌의 타인에 대한 연민의 감정에서 기인한다. 그는 대도시에서 가판대 점원으로 일하며 혼자 외롭게 살고 있지만, 몇 푼 되지 않는 책을 훔치는 로버트 굿윈을 안타깝게 여기며, 크리스마스에는 굿윈의 지갑을 돌려주려고 집을 찾아가고, 외롭게 크리스마스를 보내야하는 굿윈의 할머니를 위해 함께 그날을 보낸다.

오기 렌의 이러한 행동은 우월의식의 발로라기보다는 자신 역시 외롭다는 사실에서 기인한다. 사장이 초대해주지 않으면 혼자 크리스마스를 보내야하는 오기 렌 역시 에셀 할머니 못지않게 외로운 신세이다. 오기 렌 자신도 혼자서 크리스마스를 보내야 할 처지이기에 비록 그녀의 손자가 아니었음에도, 손자인 척하며 그녀와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쪽을 선택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기존 크리스마스 서사가 전형적 인물들과 상투적 주제로 감동을 준다면, 「오기 렌」은 대도시에서 외롭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포착하고, 그 공간에서 일어나는 절도, 거짓말, 위선 등의 부정적 측면을 현실적으로 묘사하면서도, 동시에 그러한 공간에서도 긍정적 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통해, 즉, 타인의 아픔에 대한 공감이나 이해, 함께하는 모습에 대한 묘사를 통해 감동을 준다.

이렇게 「오기 렌」은 기존 크리스마스 이야기가 가진 전형성 대신에 현실성을 가미한다. 대도시 가판대에서 일하는 오기 렌을 중심인물로 등장시키고, 그가 일하는 장소의 구체적 지명을 언급함으로써 리얼리티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물건을 훔침으로써 그가 완전히 도덕적이고 선한 인물은 아니라는 점을 부각시켜 현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복잡한 면모를 보여 준다.

IV. 나가며

패러디는 원래의 텍스트에 대한 비판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텍스트가 갖는 효과와 장점을 전제로 하여 그것의 한계를 지적한다. 이처럼 패러디하는 대상에 대한 ‘매혹’과 ‘비판적 거리두기’를 보여주는 것이 패러디의 핵심적 요소이다. 패러디의 이러한 양가적 특성은, 원래의 텍스트가 탄생한 시대와 이에 대한 패러디를 시도하는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며, 아울러 어떤 서사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도 발생한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가슴 아픈 사건」과 「오기 렌의 크리스마스 이야기」는 공통적으로 패러디 기법을 활용하여, 각각 신문 서사와 크리스마스 서사가 갖는 강점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었다.

「가슴 아픈 사건」은 더피가 저녁식사를 할 때 반드시 석간신문을 읽는 것으로 설정하여, 당대 아일랜드에서 신문이 일상생활에 깊숙이 침투한 것을 보여주었다. 뿐만 아니라, 텍스트의 중심에 신문 기사를 삽입함으로써 신문 서사가 갖는 중요성을 강조했다. 동시에 신문 기사의 제목과 텍스트의 제목 사이의 긴장관계를 통해, 신문 서사가 갖는 본질적 특징들을 다각도로 드러내었으며, ‘가슴 아픈’이라는 형용사의 의미를 다층적으로 확대시켰다.

「오기 렌의 크리스마스 이야기」 역시 제목에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삽입하여 패러디 대상을 분명하게 드러내었다. 뿐만 아니라, 본문에서는 작가를 작중 인물로 등장시켜, 그로 하여금 기존 크리스마스 서사의 한계인 소망 충족의 동화적 요소와 현실성 결여, 그리고 지나치게 감상적인 측면을 비판했다. 하지만, 오기 렌과 에셀 할머니가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장면을 삽입하여, 새로운 크리스마스 서사에서조차 얼마든지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덧붙여, 두 텍스트는 공통적으로 일상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가슴 아픈 사건」은 당대 삶의 필수적 요소가 된 신문에 초점을 맞추어, 실제 신문 기사의 서사를 텍스트 속에 삽입함으로써, 일간 신문에 실리는 기사들

처럼 ‘매일 일어나는 사소한 사건들’이 현대 문학의 소재임을 부각시켰다. 「오기 렌」은 오기 렌이 매일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서 10년 넘게 찍은 4,000장의 사진을 통해, 일상의 미세한 차이를 포착하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작가의 역할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아울러 셰익스피어의 『맥베스』의 주인공인 맥베스의 독백을 패러디하는 것을 통해, 중요한 것은 삶의 유한성이나 덧없음을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에 집중하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제임스 조이스의 「가슴 아픈 사건」과 폴 오스터의 「오기 렌의 크리스마스 이야기」는 공통적으로 패러디의 이러한 특징을 잘 이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텍스트를 보다 풍요롭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강원대)

인용문헌

- 박인찬. 「미국 포스트모던 대중소설: 폴 오스터를 중심으로」. 『현대영미소설』, 제15권 2호, 2008, pp. 157-74.
- 오길영. 「Intellect and Sensibility — A Reading of “A Painful Case”」. 『현대영어영문학』, 제52권 3호, 2008, pp. 229-45.
- 오스터, 폴. 『오기 렌의 크리스마스 이야기』. 김경식 옮김, 열린책들, 2001.
- . 『낮선 사람에게 말 걸기』. 김석희, 민승남, 이종인, 황보석 옮김, 열린책들, 2022.
- 이형숙. 「크리스마스 이야기에 대한 전복적 메타픽션: ‘오기 렌’(Auggie Wren) 3부작 연구」. 『영미문학교육』, 제19권 2호, 2015, pp. 169-96.
- 최석무. 「다양한 관점에서 「참혹한 사건」 읽기: 제목과 신문 기사를 중심으로」. 『제임스 조이스 저널』, 제17권 2호, 2011, pp. 19-33.
- Barone, Dennis. *Beyond the Red Notebook: Essays on Paul Auster*. Pennsylvania UP, 1995.
- Brockman, William, Tekla Mecsnóber, and Sabrina Alonso. *Publishing in Joyce's Ulysses: Newspapers, Advertising and Printing*. Brill, 2018.
- Brown, Mark. *Paul Auster*. Dissertation, Manchester UP, 2013.
- Conley, Tim. “Don't You Know He's Dead?” *Joyce Without Borders: Circulations, Sciences, Media, and Mortal Flesh*, edited by James Ramey and Norman Cheadle, Florida UP, 2022, pp. 262-74.
- Danius, Sara. “Joyce's Scissors: Modernism and the Dissolution of the Event.” *New Literary History*, vol. 39, no. 4, 2008, pp. 989-1016.
- d'Erme, Elisabetta. “Bloom, the Dandy, the Nymph and the Old Hag: ‘Tit-Bits’ and ‘Photo Bits,’ Reflections of the Victorian Press in James Joyce's *Ulysses*.” *European Joyce Studies*, vol. 26, 2018, pp. 25-46.
- Donovan, Stephen. “Dead Men's News: Joyce's ‘A Painful Case’ and the Modern Press.” *Journal of Modern Literature*, vol. 24, no. 1, 2000, pp.

25-45.

- Hutcheon, Linda. *A Theory of Parody: The Teachings of Twentieth-Century Art Forms*. Illinois UP, 2023.
- Joyce, James. *Dubliners*. Penguin Books, 2014.
- Kershner, R. Brandon. *The Culture of Joyce's Ulysses*. Macmillan, 2010.
- Killeen, Terence. "15 From the 'Freeman's General' to the 'Dully Expressed': James Joyce and Journalism." *Irish Journalism before Independence: More a Disease than a Profession*, edited by Kevin Rafter, Manchester UP, 2011, pp. 200-12.
- Kirchner, James Patrick. *Parody in the Fiction of James Joyce*. U of Illinois at Chicago P, 1996.
- Lethem, Jonathan. "Talks with Paul Auster." *The Believer Book of Writers Talking to Writers*, edited by Vendela Vida, Believer Books, 2005, pp. 25-42.
- Mahaffey, Vicki. *Collaborative Dubliners*. Syracuse UP, 2012.
- Norris, Margot. *Suspicious Readings of Joyce's Dubliners*. Pennsylvania UP, 2003.
- Sanit-Armour, Paul K, and Karen R. Lawrence. "Reopening 'A Painful Case.'" *Collaborative Dubliners: Joyce in Dialogue*, edited by Vicki Mahaffey, Syracuse UP, 2012, pp. 238-60.
- Shakespeare, William. *Macbeth*. Harvard UP, 1962.
- Vekić, Saša. "The Potential Symbolism: In James Joyce's 'A Painful Case.'" *Philologia*, vol. 5, no. 1, 2007, pp. 97-104.
- Wood, Michael. "Paul Auster: the Art of Fiction." *Conversations with Paul Auster*, edited by James M. Hutchisson, Mississippi UP, 2013, pp. 132-48.

Abstract

Comparison of the Parody Technique in “A Painful Case” and
“Auggie Wren’s Christmas Story”

Youngshim Lee

The purpose of parody is not only to criticize the original text, but also to examine its advantages. In this way, both ‘fascination’ with and ‘critical distancing’ from the parodied text are key elements of parody. Both James Joyce’s “A Painful Case” and Paul Auster’s “Auggie Wren’s Christmas Story” make effective use of parody. Above all, the title itself of each text implies the use of parody technique. The title of the former comes from the caption of the newspaper article inserted in the text; on the other hand, that of the latter includes the ‘Christmas story’ itself, which will be parodied in the text. Auster’s story shows such problems as the typicality, the clichéd theme of good and evil of existing Christmas narratives, but it doesn’t utterly give up a kind of ‘sentimentality’ through the scene in which Auggie and Ethel spend Christmas together. Also, both texts emphasize the importance of everyday life by means of parody. “A Painful Case” sets Duffy to read the evening paper at dinner, revealing that the newspaper was essential in the everyday life at the time. However, the problems of newspaper narrative are revealed from various angles by means of parody in the text. Auggie’s 4,000 pictures taken at the same time and place every day emphasize the importance of everyday life in the modern life.

■ **Key words** : Parody, James Joyce, “A Painful Case,” Paul Auster, “Auggie Wrens Christmas Story”

(패러디, 제임스 조이스, 「가슴 아픈 사건」, 폴 오스터, 「오기 렌의 크리스마스 이야기」)

논문접수: 2024년 6월 1일

논문심사: 2024년 6월 1일

게재확정: 2024년 6월 20일